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7월 30일(주일) 제1158호



러브소나타 동경 6,305명 참석, 593명 결신 및 긍정적 일본 교회가 주관한 가스펠나이트 성공적 개최도 고무적

10년 만에 일본의 심장 동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졌다.

지난 7월 25~26일 일본 제일의 컨벤션센터 동경국제포럼에서 막 오른 러브소나타 동경에서는 교회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25일), 리더

십포럼과 러브소나타 집회(26일)가 진행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6,305명(일본인 4,503명, 한국인 봉사자 1,802명)이 참석했고, 일본인 593명이 결신하거나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을 했다.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는 여러모로 뜻 깊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러브소나타 10주년을 기념했고, 일본 교회가 주도적으로 러브소나타 전야제인 가스펠나이트를 주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었다.

러브소나타 동경을 준비하기 위해 동경은 물론 인근 지역(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등) 교회 198개가 협력했고, 한국인 봉사자 1,802명이 동경을 찾았다. 장로사관학교팀은 행사장 5

천석을 일일이 닦으며 일본인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러한 노력에 화답이라도 하듯 집회시작 3시간 전부터 행사장에 들어가려는 일본인 참가자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면서 "그 순수한 예수님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간절하게 권면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8월 2일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

7월 31일~8월 5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추모예배 Acts29비전빌리지, 서빙고 본당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를 맞아 내일(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비전과 업적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새벽예배에 가면 하용조 목사를 다시 만날 수 있다.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믿음 시리즈'를 주제로 설교한 영상이 상영된다. 서빙고와 양재 새벽예배는 1부 5시 20분, 2부는 6시 30분에

드리고,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드린다.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 추모예배는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하용조 목사 가족들이 참석한다.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가 사회를 보고, 양재수 장로가 대표기도,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가 설교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추모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사회를 보고, 당회서기 이철 장로가 대표기도, 권준 목사가 설교한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저서로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소나타> 등 90여 권이 있다.

/ 정현주 기자

■ 특집 미래를 내다보는 기독교

1.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2.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던져줄까?

3. 과학기술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개막한다

인공지능, 무선통신, 센서와 나노기술, 초연결사회 등장



고건 장로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16세기부터 시작된 과학기술 혁명이 IT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이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면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외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나노기술, 무선통신, 센서(sensor) 기술 등을 이해해야 한다. 이 기술들을 소개한다.

인공지능, 딥러닝(deep learning) 기계학습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흉내 내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갖추기 위해 컴퓨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학습’과 ‘딥러닝(deep learning)’이 최근 알파고 바둑에서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키 큰 사람은 보통 체중도 무겁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키와 체중을 수집해(x, y) 평면에 찍어보면 그 점들이 $y=ax+b$ 라는 직선 주변에 모이게 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넣어준 다음 컴퓨터에게 “키가 173cm면 체중은 얼마쯤 될까?”라고 물으면 통계적으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된다. 컴퓨터에게 많은 데이터를 줄수록 컴퓨터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리로 아침공복과 당뇨 데이터를 컴퓨터에 많이 넣어서 그 점들이 일직선 가까이 모인다면 컴퓨터는 아침공복과 당뇨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 기계가 진단 정보를 학습해낸 것이다. 주어진 문제가 키와 체중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키, 체중, 혈당, 혈압... 같이 많은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문제라면 더욱 고차원적 문제가 된다.

컴퓨터에게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컴퓨터는 먼저 선, 면, 색깔, 크기 등 단순한 요소에서 출발해서 귀, 눈, 코, 발 같은 부분을 식별해내려고 한다. 컴퓨터는 아주 작은 크기의 화면부터 살펴보면서 그 영역이 점인지, 선인지(수평, 수직 대각선), 곡선인지, 원인지와 같은 단순한 판단을 한다. 일단 이 수준(layer)에서 내려진 판단이 상위 수준(layer)으로 보내진다. 상위 수준에서는 하위 수준에서 올라온 정보에 기반을 두고 그 영역이 눈인지 코인지 귀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 상위층으로 보내져 최종적으로 전체 그림이 어떤 동물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딥러닝(deep learning)’은 많은(deep) 층들(layer)로 이루어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혁신적으로 변화한다.

져 있고, 가장 밑바닥 층은 가장 작은 부분(예를 들면 5x5 격자픽셀)을 보면서 그 격자 속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점 직선 곡선 원 등인지) Yes or No로 판단한다(learning). 이 층에서 생성된 신호는 상위 층으로 보내진다. 상위 층에서는 밑에서 올라온 Yes or No 신호에 기반을 두고 보다 큰 이미지 부분(예를 들면 25x25 격자픽셀)이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과정이 점차 상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컴퓨터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판단(고양이/개인지, 고흐/고갱 그림인지, 어떤 글자인지)을 하게 된다. 이처럼 밑으로부터 위로 여러 층을 두고 올라가며 판단을 종합하는 기법을 ‘딥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한다.

만일 주어진 문제가 고양이 인식이 아니고 의료진단이라면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들(문진 데이터, X-레이 사진, 혈당, 체중, 의학논문 등)을 입력시키고 그 환자들 언제 어떻게 발병했는지 등 병력도 넣어준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러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한다. 의사는 흉수 같이 많은 데이터 간의 수많은 상관관계를 분석해낼 수 없지만 컴퓨터는 분석해낼 수 있다. 의사는 매년 수만 편 나오는 논문을 다 읽고 기억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할 수 있다. 의사는 사진 색깔을 몇 단계 밖에 구분하지 못하지만 컴퓨터는 수천, 수만 단계까지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의사보다 정확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무선통신, 센서와 나노기술과 변화들

인공지능에 비해 ‘무선통신’은 우리에게 친숙한 기술이다. 방 안에 설치된 WIFI 공유기, 건물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3G/LTE 기지국 등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이다. 이외에도 무선이어폰, 무선스피커, 프린터 등과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블루투스(Bluetooth) 등이 있다.

‘센서’ (sensor)는 무게, 온도, 속도 등의 신호를 입력받아 그에 상응하는 숫자(digital)를 표시해주는 기기다. 저울은 체중을 숫자로 알려주는 일종의 무게센서이다. 체온계는 온도를 숫자로 표시해준다. 그러나 보통 센서라고 하면 나노기술을 사용해서 훨씬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센서들을 칭한다. ‘나노기술’ (Nano Technology)이란 10억분의 1미터 단위의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우리가 컴퓨터에 센서라고 입력해보면 속도센서, 빛센서, 터치센서, 소리센서 등 수많은 소형 센서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안에도 빛센서, 소리센서, 터치센서 등 20~30개의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통화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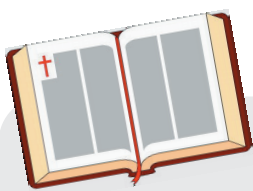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다.

최근에는 3종류(센서+컴퓨터+무선통신)의 회로를 손톱만한 크기의 칩(chip)에 같이 넣어 ‘mote sensor node’라는 이름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 mote chip은 워낙 소형이어서 양말이나 지갑에도 부착시킬 수 있고 삼킬 수도 있다. 만약 양말 속에 이 mote chip을 넣어 두면 chip안에 있는 센서가 그 사람의 이동경로와 시간을 무선통신으로 지구 어느 곳으로든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을 삼키면 내시경 기능을 하게 된다. 화분에 넣어두면 수분을 센싱해서 스마트폰으로 물줄 시간을 알려주고, 아기 기저귀에 부착시키면 기저귀 교체시간을 알려준다. 건설 현장 중장비에 부착하면 소음, 열, 충격, 진동 등을 센싱해서 기계 상태를 컴퓨터로 보내서 부품이나 오일을 선제적으로 교체하도록 알려준다. 부품 교체가 시급한 경우에는 부품의 3차원 파일을 인터넷으로 보내 현장에 있는 3D 프린터로 그 부품을 찍어내도록 기술이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사회’ 두뇌(AI)와 신경망(sensor)의 지배 받는다

PC뿐 아니라 수많은 미세한 센서들도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21세기를 ‘초연결사회’라고 부른다. 컴퓨터와 센서들이 극도로 작아지고 과격적으로 싸지면서 사람, 기기, 자연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이들 간에 정보와 제어를 주고받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부품이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인공지능은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Big Data)를 바탕으로 공장을 혁신시키게 된다. 공장 혁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판례를 컴퓨터에게 넘겨주면 인공지능이 법조계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시킨다.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의료, 회계, 금융, 언론 등 분야에서 업무의 상당 부분을 IT기술이 혁신적으로 바꾸고 도와주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사람-사물-공간이 무선인터넷으로 초연결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며(Big Data),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초지능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데 사용된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산업혁명은 에너지와 기계가 상징하는 ‘muscle 혁명’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muscle들이 두뇌(AI)와 신경망(sensor)의 지배를 받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매우 슬픔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쉽고 슬픈 일이지만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죽음의 날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준비하게 하신다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슬픔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부르셔서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전해진 슬픈 소식

모세가 떠나는 것보다 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영적으로 음란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성심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사역했던 교회가 그분이 은퇴한 이후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하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출애굽부터 광야생활 40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그로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메시지는 모세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슬퍼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슬픔을 모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 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16~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임재입니다. 어느 영적 지도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하심을 의미

하나님의 임재는 세 가지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개인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능력이나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입고,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취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민 6:25~26).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그 얼굴을 비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얼굴의 빛을 비취주시는 것에 더 나아가 얼굴을 드십니다. 히브리어 표현에 얼굴을 떨군다는 것은 보기 싫다,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얼

굴을 든다는 것은 기뻐한다 혹은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취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얼굴을 드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이 때로 얼굴을 가리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실 때 얼굴을 가리십니다. 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욕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자신이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면 얼굴을 가리심으로 임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십니다.

“보라. 여호와와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사 59:1~2).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취주시고, 얼굴을 들어주시는 임재하심입니다. 죄악이 가져오는 가장 큰 고통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축복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악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지도자들을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의 제사나 사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

닙니다. 그들이 악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에서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취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얼굴을 드시는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나 우상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장차 일어날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숭배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장차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하는 인수인계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슬픈 소식을 미리 말씀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지도자로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역사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맞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 적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꿈을 꾸는데 밤새 하 목사님과 일대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꿈은 처음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오래 시간을 대화했던 경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새 같이 있는 느낌이었었습니다. 내용이 전부 기억나지는 않지만 참 특이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전체 줄거리는 하 목사님이 저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얼마나 앓을 잘 내다보셨지를 깨달을 때마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가올 역사의 미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역사의 미래를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래는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역사의 끝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도 끝이 있고 지구에도 끝이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특집대담 러브소나타의 열매 그리고 미래

“일본 교계에 이렇게 기적적인 집회는 없었다.”

윤영섭 장로, 오오카와 목사, 이케다 목사 러브소나타를 논하다

일본 러브소나타가 10주년을 맞이했다. 오직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섬 없이 달려왔다. 일본 교계에서는 러브소나타를 “지금껏 이렇게 기적적인 집회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한국 실행위원장 윤영섭 장로(이하 윤), 일본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아마토갈보리 교회의 오오카와 목사(이하 오), 2008년 요코하마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이자 일본 교회의 원로목사 이케다 목사(이하 이)가 ‘러브소나타의 열매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러브소나타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윤: “러브소나타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해 부르시는 사랑노래입니다. 그동안 러브소나타는 일본의 23개 중·대형 도시에서 26차례 개최되었고, 협력교회 2,747개, 일본인 참가자 70,996명, 한국인 봉사자 16,757명, 일본인 결신자 3,181명, 실행위원으로 참가한 일본 목회자가 548명이나 됩니다.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세미나, 큐티 세미나, 창조과학 세미나 등이 지금도 꾸준히 전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CGNTV가 설립되어 다수의 일본인 목사들이 설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일본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러브소나타의 가장 큰 열매는 일본에 문화전도집회의 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전도집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수천 장의 초청장을 나눠주고, 홍보차량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집회에 10명에서 20명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한번은 100개의 일본 교회가 힘을 합쳐 전도집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 1천명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설교와 간증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일본 교계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러브소나타는 달랐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요코하마 러브소나타에는 무려 8천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 3천명이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에게 혼쭐이 났을 정도입니다.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브소나타의 힘이지요, 열매입니다.”

일본의 청년들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오: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일본의 젊은 성도들과 젊은 목회자들이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러브소나타와 온누리교회의 영향을 받아 잠자던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교회에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약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 교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 “러브소나타는 일본 교회가 연합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본에는 한국보다 교단이 많고 독립교회(한국 교회는 독립교단을 위한 교파가 있지만, 일본 독립교회는 교파조차 없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하나로 모이는 것이 힘듭니다. 불가능에 가깝

인 영향력이 작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러브소나타가 진행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러브소나타가 일본 교계에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러브소나타만으로 일본이 복음화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의 한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러브소나타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일본 교회는 너무 딱딱하고, 제대로 된 양육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헌신할 자리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해 주십시오. 일대일 제자양육은 초신자들을 양육하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선교, 스포츠선교, 사회선교 등도 전수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의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주면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윤: 지금까지 러브소나타는 온누리교회가 주(主)였고, 일본 교회는 부(副)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일본 교회가 주가 되고, 온누리교회는 부가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본 교회가 수동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러브소나타 전야제인 가스펠나이트를 일본 교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차세대를 위한 집회도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인 2027년에는 일본 교회 주최로 러브소나타 집회가 개최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본 교회에 의한 일본 복음화가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보다 효율적인 일본선교를 위하여 일본 교계에 온누리통합선교네트워크(Japan Onnuri Mission Alliance; JOMA)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브소나타를 포함한 다양한 복음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러브소나타가 한국과 일본의 민간외교로도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과 한국이 끝까지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오: “일본 교계는 아직 어린 학생과 같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잊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일본을 위하여 기도해주시십시오. 일본 교회가 깨어나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외치고 있다”

오오카와 목사

“일본이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달려가야”

윤영섭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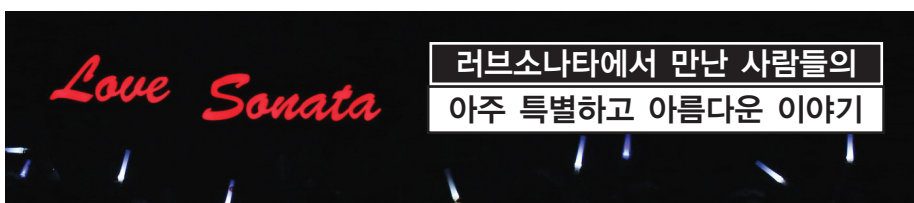
“온누리교회의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달라”

이케다 목사

이: “러브소나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물했다면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믿음을 선사했습니다. 러브소나타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성도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오교회의 한 자매는 러브소나타 이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러브소나타에 봉사하러 왔다가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도 있습니다.”

습니다. 그런데 러브소나타 이후 많은 교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큰 도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방 교회들도 도시 교회와 하나 되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 교회들도 힘을 합쳐 러브소나타 같은 놀라운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동경의 전야제인 가스펠나이트를 일본 교회가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동안 일본 교회는 규모가 작고, 성도도 없고, 교회들이 뭉치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러브소나타의 감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온전히 변화시켰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이 가득 했던 마음속에 새 생명이 움텄다고 간증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지난 10년 동안 러브소나타에서 만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았다.

/ 김영선, 이소정 기자



최지우 (배우)

최지우, 10년 만에 러브소나타 무대에 서다

한류스타 최지우가 10년 만에 러브소나타 무대에 다시 섰다. 한 일본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그녀가 수줍게 신앙을 고백하자 일본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모태신앙이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은 없었다. 그런 그녀가 여배우로 살면서부터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었다.

연예계는 삭막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세계에서 살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 그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다. 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10년 만에 다시 러브소나타 동

경 무대에 선 그녀가 이렇게 간증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재산이고, 울타리이자 방패막이입니다. 그분의 감동적인 사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토니오 코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다

노년의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는 기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번 러브소나타 동경에서도 기타 연주를 하고 간증도 했다. 그는 점잖기로 소문난 일본인들에게 앙코르를 받을 정도로 실력이 빼어난 기타리스트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 그가 두 살 때 아버지가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기억조차 못한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정말 컸다. 늘 마음 한편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테너 배재철의 매니저 와지마씨의 전도로 교회에 왔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서 왔다. 그렇게 난생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올해 부활주일에는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요즘 그가 가장 즐겨하는 연주는 ‘갓파더(God Father)’다. 75년 만에 만난 진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안토니오 코가(기타리스트)



카사하라 에미코(동경 온누리교회)

카사하라 에미코 “나는 재일교포 2세입니다”

카사하라 에미코(동경 온누리교회)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다.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녀는 재일교포 2세다. 그것 때문에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온갖 차별과 무시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도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절대 재일교포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 까.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조차 자신이 재일교포 2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

2010년 러브소나타 아사히카와 때였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같은 일본인들을 위해 단 한 번도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가 달라졌다. 일본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을 향한 사랑을 무려 10년 동안 러브소나타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고 용기 내어 가족들에게 자신이 재일교포 2세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



가나자와 야스히로 목사

가나자와 야스히로, 야쿠자에서 목사로

가나자와 야스히로 목사(예수교일본세계선교회오사카제자교회)는 전직 야쿠자다. 청소년 시절부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거의 다해봤다. 싸우다가 총에 맞은 적도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다. 총에 맞았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그날 이후 야쿠자 세계를 떠났다. 그러나 마약은 끊지 못했다. 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노방전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과 마약에 찌들어 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교됐다.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가 떠올랐다. 그 길로 아버지 친구가 하는 교회로 무작정 달려갔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이 그의 상하고 피폐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렘 31:34).

그렇게 야쿠자에서 목사가 되었다. 그의 교회에는 야쿠자 출신 성도들이 꽤 있다. 약물중독, 폭주족도 많다. 그들도 온전히 회복되고 있다.



배재철(테너)

배재철, 다시 노래를 부르기까지

테너 배재철은 영화배우 유지태가 주연한 ‘더 테너 리리코 스피노’의 실제 모델이다. 그는 동양인으로서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극찬을 받으며 유럽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2005년 가을,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암세포가 전이되어 성대 신경과 횡경막을 절단해야 했다.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를 위로하러 독일에서 와지마가 찾아왔다. 배재철은 와지마에게 베를린에서 ‘잇시키 타임1’이라는 성대 기능 회복 복원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철의 이야기를 들은 와지마는 수술이름이 일본인 이름 같다고 생각했다. 일본으로 돌아가 알아보니 그 수술을 창안한 사람이 교토대 잇시키 교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집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잇시키 교수가 흔쾌히 수락했고 2006년 2월 배재철이 교토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테너 배재철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러브소나타 무대에 서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노래와 간증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영화로 제작됐을까.

차세대연합 남아시아국



임혜빈 성도
(서빙고 유아2부)

6월 12일은 7일 동안의 아웃리치가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실지 기대하는 마음과 선교사 자녀들을 만날 생각에 긴장감이 공존했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 남아시아국 CGNTV 국장님께서 반겨주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국장님께 감사인사를 하고 싶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는 남아시아국 한인 선교사협의회 주최로 참여되었던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번 모여 강연을 듣고, 선교 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에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섬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가족 중에도 선교사님이 있어서 낯설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선교사 자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선교사 자녀를 떠올리면 외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내가 맡은 예뻐(영·유아·유치)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음성들을 들었다.

6월 13일 저녁집회에서 선교사 자녀들과 처음 만났다.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 낯설어 우

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색해하지만 우리를 반겨주는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들을 처음 본 느낌은 ‘내가 만나는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네?’였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던 아이들을 잇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과 인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아이들이 예배에 몰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관심있게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예배에 익숙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게임을 했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다. 친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또래 아이들과 생활해 본 적 없었던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기대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만져 주실 지도 궁금했다.

이번 캠프는 걱정과 다르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루 만에 아이들이 수다쟁이가 되었다. 끊임없이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관심 받고 싶어 했다. 예뻐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 같이 한국에 가고 싶어 했다. 한국에 가서 하고 싶은 것들을 참 많이 말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어려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

가슴 벅찬 경험, 신앙의 터닝 포인트



하루 만에 수다쟁이가 된 MK자녀들과 여러가지 활동과 놀이를 하고 있다.

했던 내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한국에서 편하게 사역하면서 그것도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 했던 모습이 떠올라 회개도 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중보 기도뿐이었다. 그 아이들을 응원해주는 일도 빼먹지 않기로 다짐했다.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한 활동 중에 왕관 만들기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함께 왕관을 만들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자님이고 공주님”이라고 축복해줬다. 아웃리치 오기 전부터 이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다.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또래 친

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 하던 아이들이 예배와 각종 활동과 놀이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었다.

우리팀은 아웃리치 내내 QT와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준비했다. 목사님께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예배드리 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절대 예배를 놓지 말자고 하셨다. 예배와 QT시간이 없었더라면 이번 아웃리치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음성도 들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번 아웃리치는 정말 가슴 벅찬 경험이었고, 나의 신앙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다.

부천 유치부 동아시아B국 여름캠프



여경은 코치
(부천 유치2부)

온 가족이 동아시아B국 A교회 여름캠프를 지원하는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남편과 나, 9살 윤하와 7살 윤서를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에 기대감과 더불어 부담감이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B국 A교회 캠프와 유치부 캠프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몹시 분주했다. 그럴수록 지치고 힘이 들었다.

성인 13명, 어린이 8명으로 구성된 우리팀은 동아시아B국 A교회 꿈땅 캠프에 필요한 찬양, 데코, 소그룹활동, 대그룹활동, 뮤지컬, 말씀암송선포 등을 준비했다. A교회 꿈땅 선생님들과 SNS로 연락하면서 협력했다. 뮤지컬과 말씀암송선포는 오롯이 우리팀의 몫이었다. 노래와 율동을 익히고, 합을 맞추기 위해 매일 연습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은 벅차고 힘들었다. 풍선아트를 속성으로 익히고, 여러 가지 준비물을 새벽까지 만들고, A교회 선생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팀원들을 격려하면

서 내 몸이 지쳐갔고 마음속 갈등들도 깊어졌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있지 못하는 내 자신이 실망스러웠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동아시아B국으로 출국하려는데 선생님 한 분과 아들이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다. 기도 중에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여호와 닮은’을 선포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앞일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 곧 사고를 당한 선생님과 어린이가 아무 이상 없이 공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역시 지켜 주셨다. 우리는 계획대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도착하자마자 A교회 성도들이 준비해주신 산해진미를 대접 받았다. 지치고 긴장했던 육신이 회복됐다. A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그 동안 계속 연락했던 선생님들과 실제로 만나니까 반가움이 배가 됐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다.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연합찬양팀의 공연은 정말 놀라웠고, 걱정했던 뮤지컬도 실수 없이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동아시아B국 A교회 아이들과 율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남은 것은 골로새서 3장 말씀암송선포였다. 내가 가운데에 서서 암송을 인도해야 했는데 연습할 때 자주 실수를 해서 걱정이 됐다. 리허설을 하는 중에도 틀렸다. 잔뜩 긴장하고 무대에 올라 팀원들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온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목소리 높여서 말씀암송선포 시작을 알렸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온 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것은 분명 내 지혜와 노력이 아니었다. 모든 캠프 일정을 마치고 받은 은혜의 감격이 가시지 않아서 서로 받은 감동을 나누고 격려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여러 모양의 지체가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양지 대학청년부 동아시아A국

강민규 형제
(양지 YJ공동체)

동아시아A국 땅을 밟을 수 있게 허락하시고, 직장에 대체근무자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다녀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7월 7일부터 13일까지 동아시아A국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지로 여러 번 아웃리치와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그때는 ‘나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도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양지 온누리교회에 와서 참가한 동아시아A국 아웃리치는 느낌부터 달랐다. 무엇인가 특별한 마음이 들었다.

동아시아A국 아웃리치 참가를 결정하고 4월에는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했고, 5월에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컨퍼런스 카운트다운에 참석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붙잡았다.

7월 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동아시아A국 공항으로 향하는데 기상이 좋지 않아서 공항 근처를 6바퀴나 돌다가 착륙했다. 그렇게 동아시아A국 아웃리치가 시작되었고, 양판석 선교사님과 함께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7월 8일 오전에는 크리스천 병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같이 기도했다. 먼 타지에서 의료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나도 직장에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선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오후에는 광장과 박물관을 다녀왔다. 동아시아A국의 선교역사를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A국 선교를 시작한 지는 20년 남짓밖에 안되었지만 기독교가 전파된 지는 오래되었다고 한다. 동아시아A국에도 머지않아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7월 9일에는 동아시아A국 현지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사역지로 이동했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를 개최했다. 태권무를 보여주면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파했다. 7월 10일에는 현지인 형제들과 함께 스포츠를 하면서 가까워졌다.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스포츠선교를 생각했는데, 십 수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번 아웃리치는 잊어버렸던 스포츠선교에 대한 꿈이 되살아나는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

7월 11일은 그들과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다. 오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다. 그 사역을 도와주신 현지인 자매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실된 마음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그날 오후, 선교사님께서 현지인들에게 교회에 나가보셨냐고 질문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동아시아A국 땅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양지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들이 우리 팀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한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동했다. 그들과 2박 3일 동안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들 덕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매일 아침 QT모임을 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마무리 모임을 하는 일정이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팀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어서 좋았다. 부족하지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앞으로 나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매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인천 사랑공동체 남아시아국

이요한 형제
(인천 사랑공동체)

나에게 해외 아웃리치는 실현 불가능한 단어였다. 나는 먹거리에 지나질 만큼 깔끔하고 집안에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모기를 잡고 나서야 잠을 잘

수 있는 성격이다.

인천 온누리교회에 출석한지 10년이 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죄송해하면서 선교팀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수년 전 몽골 아웃리치를 제안 받은 적이 있다. 바쁜 회사일을 핑계 대며 나 대신 아내를 참석하게 했다. 아웃리치를 끝내고 돌아온 아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는 ‘나라면 절대 못 버틴다’고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올 여름 또 한번 아웃리치에 참석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번에는 남아시아국 S섬 아웃리치였다. 갈 마음이 없었다. 이번에는 회사에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도 있었다. 교회에 당연히 못 간다고 말씀드렸다. 선교팀 지체들은 나와 함께 갈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겠다고 했다. 나 또한 모태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

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모든 상황을 인도하옵소서...”

아웃리치 참가신청 마감 2주전이였다. 우연한 기회에 회사 대표님과 대화하면서 아웃리치에 대해 말씀드렸다.

“교회에서 남아시아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지금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대표님께서 내게 “선교? 얼마나? 갔다 와라”고 하셨다. 놀라운 일이었다. 평소 산에 오르시면 절에 다녀오시는 분이 교회에서 가는 선교를 가라고 하시다니! 그것도 이 바쁜 와중에. 그렇게 나의 남아시아국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7시간 넘게 걸려 J 지역에 가서 또 다시 비행기를 환승한 다음 약 2시간 걸려 P 지역에 도착했다. 아직도 목적지에 다 온 것이 아니다. P 지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5시간 더 달려 T 지역에 도착했다. 정말 길고 힘든 여정이였다. 어디 이뿐인가. 의료팀 장비가 통관에 걸려 아웃리치 팀원들 모두가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했다. 팀원 한 명은 가방을 분실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현지 교회에 도착해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부르시는 곳으로



아웃리치팀이 실시한 아버지학교에 참석한 많은 현지인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고백했다.

알려 주세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2박 3일 동안 어린이 사역, 아버지학교, 의료사역, 특순 등 다양한 사역을 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시뮬레이션하고 간 것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팀원들의 단결과 격려가 돋보였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에 대한 답은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알 수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님을 찬양하는 순간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했다. 마음속에서 성경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나도 가지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작지만 하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았다. 일상에 복귀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남양주 대학청년부 J1 남아시아N국

이안세 형제
(J1공동체)

2년 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매년 여름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올해도 망설임 없이 남아시아N국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작년에 FA선교사로 네팔에 다녀와서 그런지 이

번 아웃리치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사뭇 달랐다. 남아시아N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더욱 노력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번 아웃리치 팀장을 맡아서 그런지 남아시아N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 부담감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기도를 수없이 했음에도 말이다. 남아시아N국에 발을 딛자마자 그런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내 안에 있던 인간적인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꿔주셨다.

우리는 가장 먼저 과거 남아시아N국의 찬란한 문화 유산을 탐방했다. 경이로운 곳이었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다. 그것들을 보자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중보기도가 나왔다. 남아시아N국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신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불교신자였다는 이유로 당연히 불교 교리를 따르고 있다. 평생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



남아시아N국 아웃리치에서 사역, 나라, 민족을 섬기고 온 아웃리치팀.

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열방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되었다.

남아시아N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난 다음 선교사님과 교류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지어로 된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네일아트와 풍선아트 등의 활동을 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순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 지 기대가 되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그 초등학교에 남겨졌으리라고 믿는다.

아웃리치 기간 중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 설립예배를 함께 드리는 영광을 누렸다. 설립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이 예배 중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궁금해졌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가 바뀌게 되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 교회가 남아시아N국 영혼들이 될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주

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했다.

이번 남아시아N국 아웃리치를 통해 나의 연약함과 리더의 자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그중에서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게 주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리라 믿는다.

남양주 B공동체 다문화 캠프

정명숙 성도
(남양주 평내호평3순)

올해도 여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그 기세가 더 맹렬해지는 것 같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아웃리치 시즌이 다가왔다. 그

래서는 안 되지만 숙제하듯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번 아웃리치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우리는 평화의 집 아이들과 함께했다. 평화의 집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다문화 아동을 위한 쉼터이다. 우리는 그들과 ‘한 여름밤의 꿈’을 주제로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 초대된 아이들은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어능력도 천차만별이었다. 각 공동체마다 다문화 아동 한 명 혹은 한 형제자매를 배정했다.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이번 캠프는 곤지암 열미수양관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크고 작은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했다. 캠프장이 작은 지구촌으로 바뀌었다. 텐트가 세워지고, 게임을 하면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바비큐파티도 하고, 각 가정의 오붓하게 속마음도 나눴다.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배꼽이 빠지도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남양주 B공동체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줬다.

웃고, 주일예배도 함께 드렸다. 모두가 한 뼘씩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아웃리치의 주역은 아이들이었다. 어른들이 아무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해도 아이들끼리 통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었다. 소통이 잘 될까 염려하던 어른들을 놀리거나 하듯이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빠르게 친구가 되었다. 주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

이번 캠프는 평화의 집 아이들을 위해 기획하고 마련된 행사였지만 분명 교회공동체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위로와 배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집 둘째도 집에 돌아와서 소감을 밝혔다.

“예전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낯설었는데 이

평생 간직할 만한 보물처럼



제는 다문화라는 말이 낯설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공동체 식구들도 한마음이 되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모아서 남김없이 불태웠다. 비가 와서 캠프파이어를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그보다 몇 배 더 뜨겁게 자신들의 재능들을 불태웠다. 포천에서부터 곤지암을 누볐던 운전팀,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노심초사하던 게임준비팀, 레크리에이션과 송환영으로 바꿨던 Joy팀, 연기와 싸우며 완벽한 삼겹살구이를 만들어 준 바비큐팀, 주일예배를 성대하게 장식한 인형극팀, 캠프 전문가집단 설치팀, 추억을 남겨주는 사진팀, 비지땀을 흘리며 100여 명을 먹인 주방팀, 아이들 손에 한가득 기쁨을 안겨준 선물준비팀, 진행전반 준비

팀, 중보기도팀까지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하나님은 행함을 통해 성장하게 하신다. 이번 아웃리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언제 이 귀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바쁜 나날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구슬땀 흘리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 기억이 평생 간직할 만한 보물처럼 우리들 마음에 남아 있다. 아주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있었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렵게 아니나마 알게 된 계기였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준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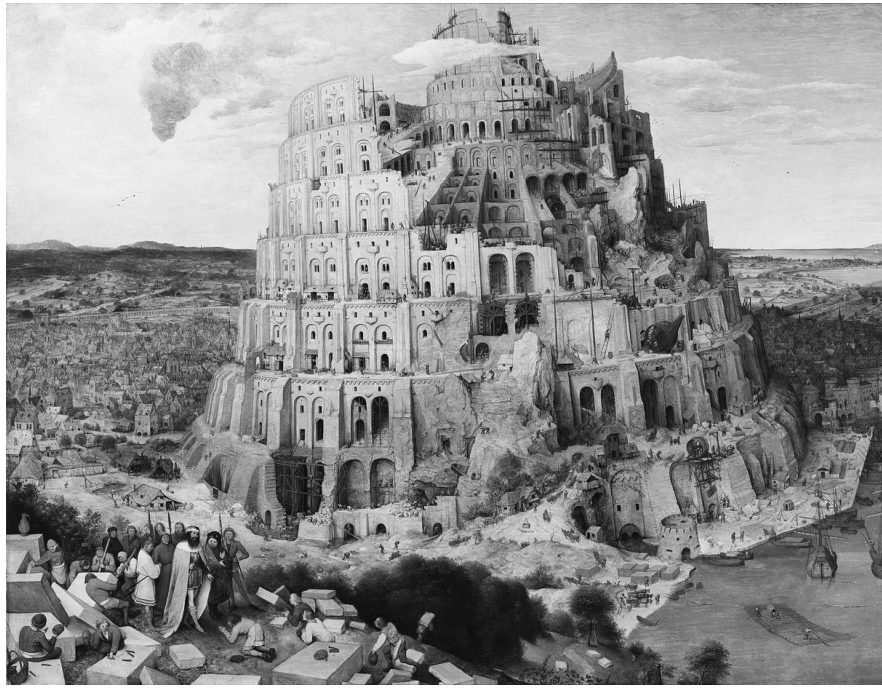
최정주 권사의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바벨탑 건설 현장을 담고 있는 피터르 브뤼헬의 그림 '바벨탑'. 아마도 인간의 교만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싶다. 대홍수가 일어나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대에 걸쳐 모여 살았다. 언어도 하나였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께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려는 우매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 높이 탑을 쌓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다.

이 그림은 인간의 교만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이지만, 브뤼헬이 살았던 16세기 플랑드르 도시 안트베르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다. 브뤼헬은 막연한 성경 속 이야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장소 속에서 성경말씀을 체감하고 재해석했다.

아득한 옛날,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 우뚝 솟은 바벨탑의 모습보다는 고도성장을 이룬 16세기 유럽 도심 한가운데 불안한 듯 높게 세워진 바벨탑의 모습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브뤼헬은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을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했던 그 옛날의 우매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보다는 교만이 더 커지고 있음을 고찰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바벨탑 그림을 보며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 바벨탑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생각해본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지고



피터르 브뤼헬의 '바벨탑' (1563년, 빈 미술사 박물관).

있을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탑을 쌓아가는 그들의 교만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심정이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라는 관악곡의 리듬과 참으로 어울리는 것 같다.

'볼레로'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스네어 드럼(Snare Drum)의 반복적인 리듬 위로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그 선율들의 연주를 위해 새로운 악기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추가된다. 이는 그림 속 층층이 쌓아 올린 바벨탑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한 순간

성경에 나온 바벨탑 사건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높은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지금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고 있진 않는지. 이런 인간적인 욕심보다 더 큰 잘못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만다.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에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었는지 잠잠히 되돌아본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나? 생각해보면 대답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요즘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잠깐 호흡을 멈추고 기도를 드린다. 한 템포 쉬면서 마음의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몰아치는 욕심도, 앞서 나가려 하는 어리석음도 조금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깨어 기도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순종적인 마음이 자칫 바벨탑을 쌓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열심과 교만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최정주 권사(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회장)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주둥이가 길게 뻗아져 나온 주전자를 발견했어요. 어릴 적 보았던 요술램프 같은 신기한 모양에 호기심이 차올라 주머니에 있던 수건으로 쓱쓱쓱 닦았더니, '펑!' 하고 연기가 피어올라요. 연기 사이로 서 있는 요술램프 요정 지니가 3분 안에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하네요? 다급한 마음에 허둥지둥하는데 요정 지니가 자비를 베풀어요.

"주인님이 주관식 서술형에 약하니 제가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만 고르시지요. 1번 소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우르르 정신없이 식당으로 뛰어어나요? 1번을 고른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곧 하늘을 유유히 날아갈 겁니다. 진정한 비행(飛行) 청소년이 되는 것이지요. 2번 소원, 혹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곳입니다. 순간이동! 3번 소원, 평소엔 주인공을 괴롭힌 친구가 있었습니까? 이제 복수할 때입니다. 엄청난 힘을 드리죠. 슈퍼 스트롱 파워! 4번 소원, 혹시 좋아하는 이성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보입니다. 독심술! 마지막 5번 소원, 그동안 공부에 힘드셨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을 가져다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휘리릭 넘기세요. 대충 한번만 훑어보아도 뇌리에 완벽하게 저장됩니다. 훑길동전에도 나왔던 신비한 능력 일람첩기(一覽輒記)!"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선택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해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는 일천(一千)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경외심과 정성으로 천 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솔로몬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

엇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재판은 여러 업무 중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맥, 청탁, 편견, 정보 부족, 아집 등으로 공평무사한 정의로운 재판과 다스림이 어렵다는 것을 솔로몬은 절감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과 자신의 한계를 느꼈던 솔로몬은 꿈에서 만난 하나님께 다른 소원을 말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미처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덩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나를 위한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해요”

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왕상 3:5).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솔로몬이 지혜 곧 좋은 머리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단순히 IQ나 지적 능력과 관련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왕상 3:9).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머리(head)가 아니라 마음(heart)이었어요. 당시 왕의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면 네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왕상 3:13).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만점짜리 소원 말하기 비법을 배웠다면 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지 말고 평소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비법을 녹여내야 해요. 나를 위한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요소인 '지(知), 정(情), 의(意)

' 가운데 정(情)의 영역에 속해있는 기도는 소원자판기처럼 나의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랍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신호(시그널)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이해하는 지(知),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의지(意志)의 영역이에요. 말씀(知)과 기도(情)와 찬양(意)이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에 덧입혀질 때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추안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엡 4:13).

이제 소원이 정리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 오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원한다면, 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마 6:33).



곽상학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소원을 말해봐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홍수피해를 입은 가구를 복구하고 있다.

후쿠오카 긴급구호 활동 마무리

5가구 복구, 폐기물 정리, 도로복구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아사쿠라 지역에서 실시한 구호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지역은 지난 6일 발생한 홍수로 사망 35명, 실종 7명, 1,024가구가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피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누리교회는 NGO 더멋진세상, 여호수아공동체, 일본어예배 성도로 구성된 긴급구호팀 10명을 해당지역으로 급파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홍수피해를 입은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도왔다. 일본 전통가옥 구조상 장비 없이 삼으로 진흙을 파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총 5가구를 복구하고, 폐기물 정리와 도로정비를 도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간증

온 누리에 하나님 사랑 알리려

지난 16일 여호수아공동체 예배에서 긴급구호팀 모집 광고를 보았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다. 예배를 드리자마자 신청했다. 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공동체 형제 6명이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

내가 수해현장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출발하기 전에 상상했던 모습과 현장은 완전히 달랐다. 현장은 정

말 열악했다. 홍수와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해서 집안까지 진흙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높이가 성인의 허리 높이 정도였다. 또한 일본의 전통가옥이 다다미 형식이다 보니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악취도 괴롭혔다. 현기증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했다.

긴급구호팀은 복구에 힘쓰는 만큼 큐티와 기도도 열심히 했다. 하

루 일과를 마치고 저마다 감동스런 신앙고백을 했다. 긴급구호 활동으로 나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선교라는 단어가 새롭게 새겨졌다.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김민길 형제 (여호수아 공동체)

제1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8월에는 '노커스 영상 공모전' 개최

CGNTV가 내일(31일)까지 시청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CGNTV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및 KNOCK, 웹드라마 등 SNS 콘텐츠가 대상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1~2장 내외(그림 및 사진 첨부 가능)의 시청 수기를 작성한 다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프로그램명을 적어서 7월 31일까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나 이메일(essay17@cgnmail.net)로 발송하면 된다(02-3275-9446). 다음달(8월 15일부터 9월 8일까

지)에는 노커스 영상 공모전을 연다. 아웃리치(단기선교) 보고영상, SNS 기독교영상, 기독교편드라마 등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어야 한다. 순수 제작물만 응모가 가능하고 입상작은 KNOCK 페이지에 게재 해준다. 제출방법은 4분 내외의 영상(MP4, AVI, WMV 포맷 2G 이내)을 제작해서 이메일(ucla2215@cgnmail.net)로 보내면 된다. 1등 300만원, 2등 150만원, 3등 50만원을 상금으로 준다.

문의: 02-3275-9526, 9437

부천 기쁨홀 신설

예배·방송팀 봉사자도 모집

부천 온누리교회가 부천시 상동 자동차백화점 203호에 기쁨홀을 신설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옆 건물이다. 기쁨홀은 일대일 제자양육 및 교제, 차세대와 대학청년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한편 부천 온누리교회 예배팀과 방송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예배팀에서는 2, 3, 4부 예배 싱어와 6부 예배 베이스 기타 봉사자를, 방송팀에서는 1부 예배 자막 또는 영상을 섬겨줄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예배팀 010-2644-4058

방송팀 010-2402-3043

TIM 선교캠프 개최

8월 10~12일 Acts29비전빌리지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TIM 선교캠프를 개최한다. '열방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지라'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캠프는 다시 한번 선교를 꿈꾸고,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목사 'TIM 25주년을 맞이하며', 한정국 선교사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홍성건 목사 'Be

Nations-Changer', 도육환 목사 'TIM Beyond the 25th year', 이재환 선교사 '여전히 선교가 답이다'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워십콘서트, TIM미션토크쇼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등록비는 6만원이다. 8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저녁집회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캠프 참가신청은 TIM홈페이지(www.tim.or.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070-4464-8118

강동, 해외 아웃리치 물품 모집

강동 온누리교회가 해외 아웃리치에서 사용할 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강동 대학청년부가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웃리치에서 사용할 장난감과

강동 차세대가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네팔 아웃리치에서 사용할 3~5세용 반바지를 찾고 있다. 관련 물품은 강동 온누리교회 1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비치함에 넣으면 된다.

복지재단 자원봉사자 및 후원 물품 모집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 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는 '책 읽어주는 이웃사촌' 봉사자를 모집한다. 온종일 침상에 누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주 1회 1시간 이상 책을 읽어주는 봉사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체도 가능하다.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서는 '행복한 요리학교'와 '평생교육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행복한 요리학교'는 50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생교육 3기 수강생도 모집한다. 9월 11일부

터 12월 22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는 경로식당 봉사자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대형 화이트보드를 모집하고 있다. 경로식당 봉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는 수학, 국어, 사회, 과학 검정고시반 학습을 도와줄 자원봉사자와 컴퓨터 수업용 노트북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3215-3411

7월 세례자

■서빙고

김윤희 790429
박유진 890418
오선경 620117
오준호 870501
육선화 500110
입교
김찬미 980312
황성준 971105
유아
박건울 150915
박재철 정정인
박세준 160721
박상문 박지혜
손은채 151007
손로몬 이해진
송현근 150924
송하상 유정예
신하울 150731
신희웅 정윤선

안테민 150814

안도현 안새라경은
이승교 151006
이옥재 채윤경
아하린 160213
이 경 장미진
정이안 150808
정일섭 이은미
정하음 150901
정경금 이현숙
열린새신자예배
신윤식 850812
신유진 860802
서제란 940716
이재은 920511
유아
조은빈 160317
조진우 이은진
신희웅 정윤선

■양재

성주희 830201
오유라 980314
윤랑구 860410
이동희 850919
주민지 84121
입교
김민성 931027
노희준 990618
유아
김재영 161019
김정태 노지연
김하은 151009
김일환 김보경
김하준 151009
김일환 김보경
나준희 160912
나정호 최정림
문송현 161025
문성철 박은경

반준서 150908

반윤석 한경진
오정민 150911
오진호 김덕희
윤승주 151114
윤치원 남자영
이건하 160722
이광선 이병희
이시은 161203
이동희 최효선
이유하 150923
이승화 우지은
한수빈 150723
한보람 박민정
한자별라 150504
한 엘 배은정
■대학청년부
길
정희령 940226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We-Couple' 참가 후기



/ 전문수, 임성정 부부(서초D공동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15년 동안 열심히 남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달 전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정말 힘들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두 아들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당신까지 매일 요구만 하는 거야? 당신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어. 당신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결혼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천사 같은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이었기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남편의 역할과 우리 부부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았다.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우리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때마침 서초D공동체 리더십 부부 초청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위커플(We-Couple) 프로그램이 열려 참가하게 되었다.

진새골 온누리교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평강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부부의 문제는 아주 작게 느껴졌다. 숲길과 하늘 가까이 닿아 있는 아름다운 건물과 예배당, 위커플 스태프들의 환대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장로님, 다락방장님, 순장님, 신혼부부 등

20여 쌍의 부부들과 함께 1박 2일을 보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첫날 ‘컬러로 본 기질 테스트’를 통해 아내는 타인과의 대화, 나는 깊은 사색을 통해 안정을 찾는 성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에 익숙하지만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아내의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깨달았다. 부부 요가와 댄스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부부는 연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우리 부부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었다.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닐면서 평생 지켜나갈 약속을 했다.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도 했다. 우리 부부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였다. 매일 하루는 아내를 가사와 자녀교육에서 해방시켜주기로 했다. 아내를 위해 내가 1일 전업주부로 변신하기로 했다. 연애 때처럼 매일 하루는 둘만의 데이트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 부부와 가정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셨다. 우리 부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새골 동산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 헬로맘 수료 간증



/ 조아라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 아내, 엄마로서의 정체성

올해 헬로맘스쿨은 지난해에 이어 ‘성경 속 여성 인물들과 함께 하는 브런치타임’을 주제로 진행됐다. 나는 임신부스쿨을 수료하면서 헬로맘스쿨에도 관심이 생겼다. 여성, 아내,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성경 속 여성들을 통해 찾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5주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까지 다녀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지만 성경 속 여성 인물들에 대한 목사님 강의와 묵상과 나눔을 통해 나를 발견해 가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1주차 강의 ‘창조적으로 섬긴 수넬 여인’에서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수넬 여인의 감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졌다.

2주차 강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 마리아’에서는 각자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해석해 보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내 이름 조아라의 ‘아라’는 우리말로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온유

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바다, 바다와 같이 넓은 생각과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어릴 적에는 이름으로 놀림을 많이 받아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 시간 통해 예쁜 이름에 감사하게 됐다.

또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 드리고 싶은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나눔을 하면서 외면하고 있던 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향유 옥합은 자녀를 향한 마음이다. 나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께서 쓰시는 삶, 주의 흔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고백했더니 평안이 채워졌다.

3주차 강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간증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4주차 강의 ‘용기 있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여성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선한 영향력과 기도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아이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이티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것이다. 더위로 인한 어려움, 현지인 사역자들과 동역에서의 어려움, 사역지 선정의 어려움, 도적들과의 씨름, 무질서함, 아내의 건강 악화, 암 수술 등 수없이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이곳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견뎌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다시 샘솟았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배고픈 아이들, 너무 허기가 져서 힘없는 눈빛으로 내 차를 세우는 싱글맘들, 소망을 잃어버리고 거리에 앉았다가 기술학교에 모여 든 젊은이들, 토속신앙에 묶여 영적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안에서 소망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있다.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길 것이다.

내가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 두란노해외선

교회(TIM)에서 권유한 사역은 ‘CHE사역’이었다. 54개 마을 중에서 첫 번째 마을 루빈에서 CHE 사역의 기반을 완성하고 있다. 이곳을 시범으로 다른 마을도 복음화 하려고 한다. CHE의 C는 지역(Community)개발사역으로 소액금융, 기술학교, 농업개량, 정수공장, 계란협동조합 등이 주축이 된다. H는 건강(Health)진료소인데, 주로 단기선교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E는 복음화(Evangelize)사역이다. 소액융자를 받아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단기선교팀과 함께 방문전도를 한다. 가정회복 등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또 다른 E는 학교(Education)사역이다. 루빈에는 현재 230명의 초등학생들이 있다.

지난 4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문을 닫는 국공립학교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각 마을이 결연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신앙교육도 할 수 있도록,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 월요노인팅 치유사역자스쿨 수료 간증



/ 이지영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개최한 은사발견세미나에서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듣고 간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다고 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치유기도로 낫게 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교회에 치유사역이 따로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막연했다.

올해 초 두통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 힘들어 하던 기간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아픈 이들의 상한 마음과 고통을 다시 한 번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때마침 <생명의 삶>에서 치유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치유사역에 대한 마음을 다시 부어주셨다. 그렇게 온누리교회 치유사역자스쿨에 참가하게 되었다.

치유사역자스쿨을 통해 치유사역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

고 선포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담대함과 확신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라는 생소한 영역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더욱 사모함으로 간구하게 되었다. 나 또한 성령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가 있고,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대 되었다.

때마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치유사역자스쿨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황을 알고 중보해주신 스태프들과 조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섬기시는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비움과 채움의 균형



우상근 장로
(이수공동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

람들과 같이 되셨고”(빌 2:6~7).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비움이 기독교 영성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눅 9:23)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떠남(창 12:1~4)과 드림(창 22:1~12)을 통해 비움을 실천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화려한 삶을 살던 모세는 양무리를 치면서 살았던 40년 동안 비움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다. 어디 이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17년 도피생활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바울은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와 고향 다소에서 아인의 삶을 통해 절절한 비움을 체험했다.

비움은 자신이 그토록 귀히 여기고 살아왔던 세계관, 인생관, 고정관념, 경험, 지식, 관계, 기회 등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옛자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갈 2:20).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을 깨닫게 되고(출 3:10, 행 9:15), 십자가의 도(제자도)가 보이며, 사도행전적 영성과 비전(마 28:19-20)을 소유하게 된다. 영성 세계에서 비움은 채움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메시아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비우신 후에 생명과 빛, 영광과 은혜와 진리(요 1:14)로 채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채움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채움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히 4:12, 례 1:16)으로, 기도로(요 15:7),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내공을 쌓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능력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움과 채움, 버림과 취함, 떠남과 머뭇, 섬김과 섬김 받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경쟁적으로 주는 것을 소원한다. 자신이 맡은 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채움 없이 나누려고 하다 보니 쉽게 탈진하고, 사역 중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관계가 훼손되기도 한다.

진정한 사역은 자신이 채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큰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다.



김영희 권사
(사랑챔버 팀장)

지난 7월 7일 온누리 사랑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어머니들이 12사단을 방문해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군복 입은 장병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사랑챔버 단원들이 연주하는 바흐의 ‘에어(G 선상의 아리아)’는

참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사랑챔버 단원들은 이날 무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의연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사랑챔버 단원들이 이제 대부분 훌쩍 커서 장병들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되었다. 사랑챔버 단원들의 엄마들은 매번 동행하면서 뒷바라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녀들이 연주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한다. 250명 남짓 앉아 있는 12사단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특히 남자단원을 둔 엄마들은 울컥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게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가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이다. 군복 입고 늠름하게 경례하는 아들의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을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때때로 두렵지만 사랑챔버 단원들은 특별한 기쁨이요 상급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여기고, 그분의 왕 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무대에 선 사랑챔버에 시선을 고정 시켰다. 학교에 다니면서 겪은 제각각의 상처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아이들과 그런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더 깊은 아픔을 감내해 온 엄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얻고 나니 지나온 아픔의 시간을 감사로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사랑챔버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되었다. 그 한 사람의 움직임이 18년 동안 수많은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다. 사랑챔버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른다. 발달장애인이란 두꺼운 벽에 부딪쳐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대로 묻혀 버릴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마음껏 나래를 펴고, 희망과 사랑을 전하며, 음악을 타고 벽을 넘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제는 제법 호흡도 잘 맞는다. 공연 리허설 때 박자가 잘 안 맞으면 엄마들이 구석에 모여 기도하고 또 한다. 그리고 잠시 후 본 무대에서는 기특할 정도로 조화로운 소리를 낸다. 불안했던 엄마들의 마음을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주곤 한다. 규칙적이지 않은 것을 못 견뎌하고, 새로운 환경을 매우 불편해 하는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이 연주를 다니면서 여러 상황에 적응하다보니 이제 웬만한 상황 변화는 아무렇지도 않다. 무대에서는 자기 책임을 다 한다.

얼마 전 초창연주 때 있었던 일이다. 심한 자폐성향 때문에 연주 도중 돌발행동을 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무대에 세운 플루트 연주자가 몸을 심하게 움직이고, 갑자기 넥타이를 풀어 내리면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가 본인의 연주 순서가 되니까 정확한 박자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연주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수화 하느라 무대에 서 있던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슴이 빠근해지면서 수화 동작을 실수할까봐 참느라 애를 먹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랑챔버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랑챔버가 가는 곳마다 뽕뽕 잠긴 마음의 빗장들이 열리는 훈훈한 기운을 맛보았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전도의 사각지대에도 사랑챔버는 들어갔다.

사랑챔버 단원들을 뒷바라지 하는 엄마들의 열심이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에서 비롯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꿈을 연주하는 사랑챔버’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마음의 벽이 제거되면 장벽도 사라진다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많은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면서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다. 장애인 사역의 가장 큰 장벽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안에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사역은 내안에 자리하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과의 싸움

이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 로마는 모든 국가로 통하는 훌륭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잘 닦여진 로마의 길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 일

들이 이뤄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길도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도 길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가장 중요한 길은 우리 마음에 놓인 길이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로마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했다. 이것을 막고 있는 장벽은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었다. 유대 기독교인들조차도 로마인들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유대 동족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만이 선하다고 믿는 집단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무리 로마에 길이 열려 있어도 유대 기독교인들의 선입관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복음이 퍼져 나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환상 중에 보자기를 펼쳐 보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다. 그 안에는 베드로의 생각으로 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베드로는 당연히 먹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세 번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 속에 있는 벽과 대면하게 된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던 그였다. 자신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은 유대인의 벽을 넘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가게 된다. 하나님은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베드로 마음의 길에 놓여있던 편견과 선입관을 제거하셨다. 이처럼 마음의 벽이 제거되면 사역의

장벽도 사라진다. 어쩌면 장애인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편견과 선입관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제거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길들을 여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장애인에게도 가르치기 힘든 약기를 발달장애인에게 가르치는 순종이 사랑챔버를, 발견하기 힘든 자신의 소리에 맞춰 합창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온사랑 합창단을 탄생시켰다.

매순간 크고 작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를 고민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벽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사역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다. 장애인사역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미래 역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인 멸망은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통제할지를 생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법 자체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법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법 자체가 사람들의 악을 보호해줍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우리에게 누가 알려줍니까.

오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둘째,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재앙이 닥친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래에 있을 백성들의 타락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담대하게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

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23절).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백성들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을 이끌테니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귀속과 회복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신실하시다는 내용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음세대들에게 역사를 알려주고 교훈을 남겨줄 중요한 도구가 노래입니다. 한 시대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천박하고, 사상이 없고, 생각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는 피상적인 노래라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은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노래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을 심어줘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에 대한 가치를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리듬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가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우리는 언제나 넘어진다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암송하기는 힘들어도 찬송을 통해 기억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찬송가사도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다음세대들에게 좋은 노래를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교육가입니다. 노래를 통해 다가올 역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기간은 회복을 위한 징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귀속이요, 회복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전히 지키시며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잠시 잠깐 얼굴을 가리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셔서 변화시키고, 얼굴빛을 비취주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며 축복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시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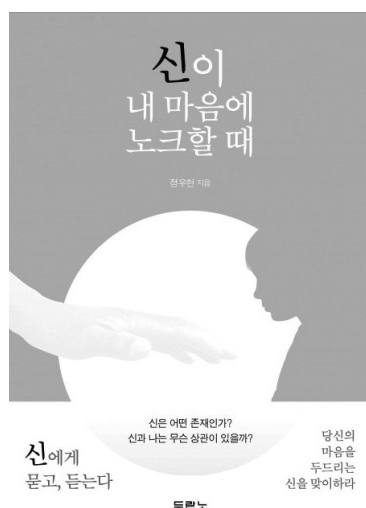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가려졌더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과연 신은 존재할까?



〈신이 내 마음에 노크할 때〉
정우현 저 | 두란노 | 12,000원

과연 신이 존재할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까?

이 책의 저자 정우현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는 무신론자 아버지와 유신론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신이 정말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인 정우현 교수는 만약 신이 있다면 우주를 창조한 존재여야 한다고 가정했다. 또한 신은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동시에 절대 선의 근본이라는 점도 전제했다. 완전해야 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 하는 일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모든 것에 완전하고, 신의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며, 인간이 창조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어야 한다.

당신은 신의 의도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인간의 기대를 택하겠는가? ‘나는 신의 목적을 따라 창조된 필연적 존재다’라는 말에 동의하겠는가? 아니면 ‘나는 특별한 목적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라는 말을 믿겠는가? 이제 저자의 물음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 과연 신은 존재할까?

가장 어려운 기도이자 가장 쉬운 기도



〈더 깊은 사림〉
유해룡 편역 | 두란노 | 10,000원

기독교 전통에서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음성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음성 기도이다. 음성기도는 구체화된 음성으로 나오는 기도이고, 비음성기도는 말이 아닌 비언어로 드리는 침묵기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음성기도는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도법이다. 음성기도와 달리 비음성기도는 다른 영적 수련과 훈련이 필요하다. 음성기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 교회사적 배경에서 내려온 기독교 전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침묵기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이자 가장 쉬운 기도가 바로 ‘향심기도’다.

이 책은 향심기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유해룡 교수가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 〈A Pathway to Freedom〉이라는 원서

를 토대로 편역했다.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향심기도를 실제로 배울 수 있다.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온누리가족 나눔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봉분에 의한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온누리교회 원두 납품업체 입찰 공고

품목: 커피 원두(월 소요량: 250~300kg)

기간: 10월 01일~2018년 9월 30일(1년)

제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용산동6가) 온누리선교재단 SVC부

경영지원팀(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마감: 8월 9일 18:00시까지

문의: 온누리선교재단(02-3215-3176)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53기 내적치유학교

기간: 8월 18일~20일

장소: 파주 솔 수양관

신청: 선착순 110명, 아이스콜 홈페이지

회비: 15만원

강사: 이기원, 정희성 목사 외

내용: 역기능 가정의 치유와 회복,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기 외

문의: 010-5543-8002, 010-4382-1128

꿈아이놀이터 29기 모집

대상: 22~38개월

기간: 9월 13일~11월 15일 매 주 수 10:40~

12:40

회비: 15만원

신청: 9월3일(주일)까지

방법: 신청서/문자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꿈아이놀이터 교사 모집

분야: 음향, 세팅, 찬양, 데코, 반주, 소그룹,

자료 제작 등

문의: 김혜영 전도사(010-3174-8107)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 주 월 19:30 양재 JDS홀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나눔이 필요한 곳, 세월을 간직한 마을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다니며 마지막 한 영혼까지 돌보는 최철호 목사

마을 일들을 '함께' 섬기며 사랑으로 익어가는 교회 공동체 '경북 의성 가음교회'편



방송 2017. 7. 31 (월) 오전 11시 30분 / 출연 김선정, 제이미 스톤즈